

福音新聞

福音新聞社
 大阪市西成区梅通5-2
 連絡事務所・京都市右京区
 西院矢掛町20 京都教会内
 電話(075)311-5051
 発行人・李 仁 夏
 編集人・洪 東 根
 印刷所・儒 文 社
 電話(06)716-5046
 定 価 ・ 2 0 円

1. 教会革新
2. 社会变革
3. 世界所望

南北共同声明支持基督者大会

○	7 · 4 남북공동성명 지지기독자대회	지난 7월 23일	재일대한국
○	독교회총회 주최로 재일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개최되어	7 · 4 남북	공동성명을
○	한영 지지는 재일대한국기독교청년회, 재일대한국기		교회를전도회, 재일대한국교관사지방평신도회,
○	대표들의 시노결의 표명이 있었후 분단된 조국동맹을		위하여
○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동단결을 호소하는		남북공동성
○	명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화해의 복음에 입각하여 남북통일		대
○	업에 최선을 노력으로 참여한다는 재일대한국기독교총회의 선언		
○	문미 발표되었다.		
이날	기독자대회는 충무총회가 주안에 있는 오를	소원해 왔다. 통일은 우	
인인학목사의 사회로 시작	여러 부부형제자매들의 힘	의 기도의 제물이었고	
되어 전격의 기도가 있은	을 몰아 7 · 4 남북공동성	래의 제목이었다. 이제	
후 전도국장 김덕성목사의	명지지대회를 열게되어 기	복이 용단을 내려 주	
이사야40장1절에서 11절까	쁘다고 말하고 28년전 조	상상을 제도물 초월, 비방	
지의 교육문이 교육국장	국이 미국과 소련의 간섭	삼가고 자주적이고 평화	
홍윤근목사에 따라 낭독되	과 홍정호로 국토가 분단되	인 통일을 지향하여 대	
었다.	고 밤낮으로 통일운 우리민족	의 문물을 열개된것은 놀	
총회장 김득삼목사는 개	의 홍명선외를 좌우하는	운 일이며 세계만방에	
회에서 재일대한국기독교회	최고의 과제로 생각하고	게 자랑할 일이다. 오	

南北共同声明支持基督者大会 宣言文

지난 7월 4일 祖國의
 南北關係를 改善하여 같
 라진 나라의 統一을 위
 하여 自主의 이고 平和의
 方法으로 民族의 大
 同團結을 호소하는 南北
 共同聲明은 기쁨에 넘친
 메아리처럼 祖國에서 海
 外에 사는 우리 마음속
 까지 울려왔다.
 오늘 在日大韓기독교회
 宗회 산하 우리 信徒들
 은 共同聲明을 歡迎하며
 支持하는 基督者大會를
 召集하여 우리의 所信을
 内外에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歷史의 主되신
 하나님을 信仰으로 告白
 하는 무리로서 民族의
 統一은 하나님 의 깊은 신
 摺理의 숨씨와 이에 대
 답하는 民族의 決斷으로
 實現되어 갈수 있음을
 確信한다. 이스라엘의 預
 言者와 함께 우리는 이
 民族에게 주어진 한 꿈
 을 본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에스겔 37·17)
 과연 남북은 그 서 있
 는 각기의 政治的立場을
 止揚하여 무엇보다도 民
 族의 幸福을 優先시키는
 自由와 社會正義가 貫徹
 되는 새로운 한 나라로
 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 當局은
 各기의 思想과 理念 그
 制度를 絶對視하는 立場
 을 떠나서 自由와 正義
 의 民主國家로서 世界에
 빛나는 祖國이 새롭게
 誕生하기 위하여 忍耐과
 對話를 계속하기를
 바란다.
 南北代表가 祖國統一을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

서 우리는 먼저 歷史의 4半世紀間 分斷으로의
主되신 하나님의 하시는 서로 상처를 입은 民族
일에 최선으로 對答하지 않게 慰勞와 希望을 주
못한 怠慢과 우리 民族 며 民族의 統一을 이룩
을 向하여 담대하게 予 하는 大業에 최대의 努
言者의인 發言과 行動을 力으로 參與할 것을 宣
取하지 못한 過去의 咎 言한다。
못을 뒤우치고 새로운 主 하나님이지여 어서
出發點에 서고자 한다。 오서서 平和와 統一된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것 우리나라를 건설하소서。
을 새롭게 하시는 創造主 아 멘
되신 하나님의 役事를

1972年7月23日

가 되고	조국의 조속한 시	가 되고	조국의 조속한 시
일에	통일되기를 위하여	일에	통일되기를 위하여
성명을	언속히 선언하고	성명을	언속히 선언하고
또 어떤	노고라도 아끼	또 어떤	노고라도 아끼
지 않고	공헌할 결심과	지 않고	공헌할 결심과
각오를	해야겠다. 우리 기	각오를	해야겠다. 우리 기
독자의	신앙앞에는 네 이웃	독자의	신앙앞에는 네 이웃
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다.	원수가 존재할 수 없	있다.	원수가 존재할 수 없
고 다만	형제자매만이 존	고 다만	형제자매만이 존
재한다.	우리는 우리의 과	재한다.	우리는 우리의 과
거의	부자연스러운 관계중	거의	부자연스러운 관계중
동족(사랑), 형제(대접),		동족(사랑), 형제(대접),	
자매(교제)를 사랑하지		자매(교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	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
로서	청산하고 사랑으로	로서	청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해 나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해 나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조국통일은	삼천리 금수	조국통일은	삼천리 금수
강산이	부르짖고 있으며	강산이	부르짖고 있으며

電話 (06) 716-5046
 定 価 ・ 2 0 円

의



信願

1. 教会革新

2. 社会变革

3. 世界所望

바리다라는 요지의 개회사를
가질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축하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에서 우리조국이 통일된
멀지않는 장래에 이 자리
통일하자. 그래서 다시한번
려 행동을 일으켜 어서

다. 어서 우리는 통일을
달성하자! 통일을 위하여
이 몸, 마음, 정신을 기울
통일하자. 그래서 다시한번
려 행동을 일으켜 어서

6. 25전쟁의 우리의 피
호소하는 것이며 참자유를
갈망하고 사회정의의를 부르
짓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
매들의 회원하는 소리가
통일을 위하여

共同声明支持基督者



南北共同声明支持文（要旨）

하나님께 더욱 기원해야 하옵나니	이 추복으로 확신하기에 크 다 는 결심을 새롭게 하	사실은 하나님의 크 다 는 결심을 새롭게 하	사적인 사실이다.	는 8 · 15 해방과 같은 역	감격의 눈물을 금할수 없	은 7 · 4 남북공동성명은	중상과 비방을 일심아 왔	저 피차 원수로 대시하고	사랑하는 부모형제가 갈라	각하고 감사한다.	28 년간	님의 섭리와 축복으로 생	상 못했었다. 이것은 하나	이렇듯 빨리 열린줄은 상	해 온 조국통일의 문이	우리들이 소원하고 기도	하며 반성한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부족을 모두가 성취
----------------------------	--	---	--------------	-------------------------------	------------------------	-----------------------	------------------------	------------------------	---------------------	--------------	----------	------------------------	-------------------------	------------------------	-----------------------	--------------------	---

재일대한기독교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김항운

자유가 구현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화해의 복음을	민는 기독교자로서 자주와	평화적인 해결에 이바지해	야한다고 말했다. (2면참조)	오목사의 기조강연회에서 김항윤회장이, 재일대	한기독교회청년회에서 김수남군이, 재일대한기독교관	서지방평신도회서는 양건묵	씨가, 재일한국 YMCA 서는	유석준 이사장이 각 7	4 남북공동성명을 환영 지
것이왔다했다. 첫째로 민족의 주체성 회복이다. 주체성회복은 소위 통명이라는 日 本名의 취소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석준장로는 민족독립운동의 발상지인 Y M C A가 민족통일의 대업을 위해 고난을 극복한다고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어 사회국장 김재술장로가 대화선언문을 낭독하였고 西村関二氏(사회당의원)、西 塩川正郎氏(자민당의원)、西 原明목사(일기단소속)、유지										

대회는 성대히 끝났다.

자대회를 개최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역사의 주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무리로 서 민족통일은 하나님 의 섭리의 숨씨와 이에 응답 하는 민족의 결단으로 실현 될것을 확신한다고 말하 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 는 데만하고 애인자적인 일대하기독교회의 책임과역 할은 중대하다. 시급히 대회를 재정비하여 내부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태만과 기회주의로부터, 일부 교권 과 이해관계로부터 탈피하여 그리스도의 화해자로서 앞장 서서 내부가 단결하고서 서로 힘을 합하여 대사회 에 애인자적인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먼 저 민족의식을 되찾고 하 나가 되어 사회에 본이되 어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 의 시점에 있어서의 재일대한 기독교회의 해야 할 임무를 검토하고 새로운 선교정책 을 수립해야 한다. ▶폐쇄 적인 사고와 생활양식을 지 양하고 민단사회, 조종편사 회, 일본사회에 대처해 나 갈 독자의 선교정책을 가 지고 재일대하기독교회만이 조국과 민족에 이바지할수 있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수행하여 나갈때 교회 는 발전하고 전진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재일대하기독교회의 존재 이 의와 존재가치가 될것이다.

基調講演全文

基調講演全文

自主・平和統一 声明歓迎
하나님 주권의 百姓되길

가 믿는 創造主요 和解主
요, 歷史의 支配者인 主
禱願하는 무리들이다.

韓民族이 4千年 歷史上에
단 한번 拳族의 으로 일어난
3·1 獨立運動은 東京 우
리 YMCA에서 始發하였다.
그와같이 이번 이 큰 歷
史的 聲明은 聲明의 主旨
그대로 完成되어 모든 不
幸속에 놓여있는 우리民族
이 하나님의 祝福속에 있
어 우리는 그의 百姓이
되고 그는 우리 하나님
이 되기 위하여 오늘 自
主 平和統一의 聲明을 歡迎
하는 同時에 이 일의 完
成과 神의 摂理의 손이 함
께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이다.

宣敎政策樹立時急

보고 듣고 느낀 것 — 在日大韓基督教와의 15일 —

金正俊

在日韓國敎會에 感謝

내가 외국 여행하는 도중에 일본에 들러서 하루나 이틀 재일대한국교의片貌를 보아왔고 또 일본에서 本國으로 찾아오신在日大韓基督教 指導者들과의 面談을 통해서 이敎會를 알고 온 나는 이번 中部地方과 關西地方 伝道集會를 인도한 경험과 4일간 이 교단 교역자면수회 강사로써 지난 경험에서 在日大韓基督教會에 대한 印象을 좀 더 깊히 할 수 있었고 내가 알지 못한 여러가지 實情을 알게 된 것을 참으로 多幸하게 생각한다. 나로 하여금 15일간 在日大韓基督教會속에 오게한 여러분과 내 集會와 講演會를 위하여 親切히 手助け 주신 여러 同役者 信徒들에게 심심한 감사사를 드리고 싶다.

本國敎會의 現狀

본국敎會가 최근에 와서 在日大韓基督教會와의 紐帶를 갖기 위하여 선교사단을 派遣할 수 있게 된 것을 우선 기쁘게 생각한다.

61만 교포사회 속에서 불교 3, 4천의 교회 신도를 가지고 있는 재일대韓基督教會가 역사적 상황이나 다른 이 異國땅에서 고향을 하고 있는 敎會에 본國에서 同役者를 보내주는 課業을 분담해 한 것은 참으로 장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장한 일이 現地 在日大韓基督教會가 정말 要請하고 있는 敎會가 보내는나 아니면 本國敎會가 가진 意欲의인 宣敎熱心이 보낼을 받는 現地事情을 充分히 考慮할 수 있는 點은 한번 熟考할 時期가 왔다고 본다.

現地要請의 宣敎師派遣

이런 立場에서 볼때 本國敎會가 이미 宣敎師를 보내는 것을 後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今後 이런 宣敎사를 보낼때는 絕對的으로 在日基督教會 어느 個人 베이스로 알음 알음을 토대로 한 派送이란 삼가야 하고 바록 日本에 와있는 유학생이 잔류하여 선교사 명칭으로 敎役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在日大韓基督教會의 임직원회와의 충분한 相議 끝에 서로의 一致를 보아 보내는 것이 主權보다 받는 이 곳 우리敎會의 主權아래 과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切感한다.

印度宣敎師 政府가 許可

이런 立場에서 볼때 本國敎會가 이미 宣敎師를 보내는 것을 後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今後 이런 宣敎사를 보낼때는 絕對的으로 在日基督教會 어느 個人 베이스로 알음 알음을 토대로 한 派送이란 삼가야 하고 바록 日本에 와있는 유학생이 잔류하여 선교사 명칭으로 敎役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在日大韓基督教會의 임직원회와의 충분한 相議 끝에 서로의 一致를 보아 보내는 것이 主權보다 받는 이 곳 우리敎會의 主權아래 과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切感한다.

同役者로서의 印象

나는 客觀的인 立場에서 보아 온 사람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난 여러가지 現象을 잘 못 判斷하는 것이 勿論이 있을 줄 알면서도 몇마디 나의 印象記를 적고자 한다. 다만 이 印象記 속에는 어느 個人을 생각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神學敎育者로서 이 敎

現地主導權아래 派送

둘째로 提言하고 싶은 것은 本國敎會가 하나로

本國敎會의 問題

첫째 敎會의 存在理由에 대한 심각한 反省이다. 敎會가 어떤 目標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敎會가 日本社會 안에서 가져야 할 宣敎政策이 무엇인가, 敎會의 사명을 어디다

同胞敎會의 問題

이런 立場에서 볼때 本國敎會가 이미 宣敎師를 보내는 것을 後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今後 이런 宣敎사를 보낼때는 絕對的으로 在日基督教會 어느 個人 베이스로 알음 알음을 토대로 한 派送이란 삼가야 하고 바록 日本에 와있는 유학생이 잔류하여 선교사 명칭으로 敎役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在日大韓基督教會의 임직원회와의 충분한 相議 끝에 서로의 一致를 보아 보내는 것이 主權보다 받는 이 곳 우리敎會의 主權아래 과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切感한다.

在日宣敎師協助委 緊要

이런 立場에서 볼때 本國敎會가 이미 宣敎師를 보내는 것을 後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今後 이런 宣敎사를 보낼때는 絕對的으로 在日基督教會 어느 個人 베이스로 알음 알음을 토대로 한 派送이란 삼가야 하고 바록 日本에 와있는 유학생이 잔류하여 선교사 명칭으로 敎役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在日大韓基督教會의 임직원회와의 충분한 相議 끝에 서로의 一致를 보아 보내는 것이 主權보다 받는 이 곳 우리敎會의 主權아래 과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切感한다.

對以北宣敎담당해야

이런 立場에서 볼때 本國敎會가 이미 宣敎師를 보내는 것을 後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今後 이런 宣敎사를 보낼때는 絕對的으로 在日基督教會 어느 個人 베이스로 알음 알음을 토대로 한 派送이란 삼가야 하고 바록 日本에 와있는 유학생이 잔류하여 선교사 명칭으로 敎役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在日大韓基督教會의 임직원회와의 충분한 相議 끝에 서로의 一致를 보아 보내는 것이 主權보다 받는 이 곳 우리敎會의 主權아래 과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切感한다.

對以北宣敎담당해야

이런 立場에서 볼때 本國敎會가 이미 宣敎師를 보내는 것을 後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今後 이런 宣敎사를 보낼때는 絕對的으로 在日基督教會 어느 個人 베이스로 알음 알음을 토대로 한 派送이란 삼가야 하고 바록 日本에 와있는 유학생이 잔류하여 선교사 명칭으로 敎役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在日大韓基督教會의 임직원회와의 충분한 相議 끝에 서로의 一致를 보아 보내는 것이 主權보다 받는 이 곳 우리敎會의 主權아래 과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切感한다.

世代差解消 相互理解

이런 立場에서 볼때 本國敎會가 이미 宣敎師를 보내는 것을 後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今後 이런 宣敎사를 보낼때는 絕對的으로 在日基督教會 어느 個人 베이스로 알음 알음을 토대로 한 派送이란 삼가야 하고 바록 日本에 와있는 유학생이 잔류하여 선교사 명칭으로 敎役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在日大韓基督教會의 임직원회와의 충분한 相議 끝에 서로의 一致를 보아 보내는 것이 主權보다 받는 이 곳 우리敎會의 主權아래 과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切感한다.

指導層에 대한 不信風潮

이런 立場에서 볼때 本國敎會가 이미 宣敎師를 보내는 것을 後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今後 이런 宣敎사를 보낼때는 絕對的으로 在日基督教會 어느 個人 베이스로 알음 알음을 토대로 한 派送이란 삼가야 하고 바록 日本에 와있는 유학생이 잔류하여 선교사 명칭으로 敎役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在日大韓基督教會의 임직원회와의 충분한 相議 끝에 서로의 一致를 보아 보내는 것이 主權보다 받는 이 곳 우리敎會의 主權아래 과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切感한다.

不信의 同胞敎會의 弱點

이런 立場에서 볼때 本國敎會가 이미 宣敎師를 보내는 것을 後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今後 이런 宣敎사를 보낼때는 絕對的으로 在日基督教會 어느 個人 베이스로 알음 알음을 토대로 한 派送이란 삼가야 하고 바록 日本에 와있는 유학생이 잔류하여 선교사 명칭으로 敎役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在日大韓基督教會의 임직원회와의 충분한 相議 끝에 서로의 一致를 보아 보내는 것이 主權보다 받는 이 곳 우리敎會의 主權아래 과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切感한다.

指導者養成에 注力해야

이런 立場에서 볼때 本國敎會가 이미 宣敎師를 보내는 것을 後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今後 이런 宣敎사를 보낼때는 絕對的으로 在日基督教會 어느 個人 베이스로 알음 알음을 토대로 한 派送이란 삼가야 하고 바록 日本에 와있는 유학생이 잔류하여 선교사 명칭으로 敎役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在日大韓基督教會의 임직원회와의 충분한 相議 끝에 서로의 一致를 보아 보내는 것이 主權보다 받는 이 곳 우리敎會의 主權아래 과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切感한다.

在日大韓基督教青年会全国協議会中央委員会

7・4南北共同声明支持文

去る七月四日、祖国の統一をかねてから願ってきた私達は、自主的平和的に統一を促進せんとする「南北共同声明」の郎報を感激のうちに受け取りました。二十七年間の祖国の分断がもたらしてきた種々の民族的悲劇と苦痛の歴史の体験を通して、私達は、祖国の統一が、民族至上の課題であり、自分自身の手で成しとげられねばならないと痛感していましたが、「南北共同声明」にみる七項目の合意事項には、そのような私達韓国人すべての願いと意見を反映して統一の達成に不可欠で貴重な条件がもたらされています。

全協中央委員会、はこの「共同声明」を全面的に支持し、歓迎すると同時に、七項目の合意事項を民族的責任のもとに受けとめていくと共にこれを阻害せんとする者に対して徹底的に斗争していくことを表明したいと思ひ、今までの教会青年会は本國で起つてきたさまざまな事実を、自分の問題としてとらえられず身近なことにみ注意を向けてきました。又人間性を触むさまざまな差別を受ける中で民族という険悪感すら感じてこばにひたすら、現実から逃げようとする傾向さへありま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在日同胞青年、特に教会青年の民族的虚無主義は、他ならず祖国が南北に分断されていることに大きく起因して

南北共同声明支持基督教者大会

宣言文

去る七月四日、祖国の南北関係の改善し、分断された國の統一の為に、自主的に平和的方法により、民族の大同団結を訴える南北共同声明は喜びにあふれるこだまに似て、祖国より海外に居住するわれわれの心の底にまで鳴りひびいた。

今日、在日大韓基督教者大会に属するわれわれ信徒は、共同声明を歓迎し、支持するキリスト者大会を召集しわれわれの所信を内外にひききしようとする。

われわれは歴史の主なる神を信仰によって告白する群として、民族の統一が神の深い摂理の業と、これに応える民族の決断によって実現していくと確信する。イスラエルの予言者と共に、

在日大韓基督教者総会

一九七二年七月二三日

「以降、具体的な民族民主化運動の列の中に加わるようになりなりました。」

民族・民主化運動に史上かがやく「四月革命」の学生たちが、「来れ南へ、行こう北へ」というスローガンのもとに多くの血の犠牲を払いながらも、たおれていった、その同じ民族民主化統一運動の道を、私達は進んでいます。しかし、十年前と違って今日では、自主的、平和的に統一を叫ぶ者は、統一を阻止する者をほう圍してあります。「南北共同声明」を支持し、祖国統一を実現する為に闘う者、その環をいっそう拡大してあります。「南北共同声明」の発表は、私達の民族が外勢をはいして、互い

に膝をまじえて語り合うならば民族内部のどのような問題でも解決できるのだというところを、世界に証明したし、いまわしい分断の時代は、終りに近づいていることを確証しています。

全協中央委員会は、これから、教会青年が一人残らず民族の主体を確立しつつ共に民族の自負心をもちつて祖國統一の遠業に参加していくために今後より一層積極的の活動を通じていくことを表明します。

一九七二年七月二三日

在日大韓基督教青年会
全国協議会中央委員会

関連青年總會
 지난 6월 18일 72년도
 관서지방연합청년회 총회가
布施교회에서 열렸다.

회장 김태인 (京都), 부회장 이태문 (平野), 서기 박경자 (武庫川), 부서기 김신영 (大阪), 회계 김태근 (布施), 부회계 하에자 (西宮).

빌립보서

감사와 확신 (一章三―八절) ③

尹宗銀 (堺教会牧師)



聖書研究

⑥ 「나희속에 착한일을 시작하신이」 착한 일이란 하나님을 빌립보교인들로 하여 구원받게 하는것이 다. 죽을 사람이 구원받 는 일보다 더 착한 일이 있을가. 구원은 이미 약속되어 현재 진행중이 있으나 결코 완성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⑦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라」 빌립보교회는 현금을 통해서 (四・一四一六) 바울의 고난과 그의 전도사업에 참여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함께 참여자가 된것이다.

⑧ 바울이 빌립보교회 온신도를 차별없이 사랑 하고 일마나 사모하는가 의 진심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내증인」이라고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십자로」 저희를 사모하였

다. 즉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사용되고 있다. (로이 날로 깊어지며 뜨거워져야 할것을 간구한다. 그 러나 사랑이 사랑 그대로 전진하려면 「지식」 epignosis 은 발달된 완전한 지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에 관한 이론적 지식은 뜻하고, 「충족」 aisthesis 은 원리적인 것의 실천적 지식을 가르킨 말이다. 만 사 랑엔 지식과 충명의 겸손할 때 사랑이 날로 풍성해 질것이다. ⑩ 너희로 지금의 선한것을 분별하며 지식과 충명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랑은 지금의 선한것을 분 하게 된다. 「분별한다」 dokimazo 는 말의 헬라고전에서는 화폐의 진위를 시험하는 기술적 용어로 사용하였다. 신약서에서는 이말이 「시험한다」 또는 「증명한다」 의 뜻

韓国舞踊研究生募集

韓国舞踊といつても①宗教舞踊②宮中舞踊③民族舞踊④現代舞踊と大きく4つのカテゴリーに分けられます。これらを徹底的に勉強するにはいろいろな分野から研究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ずは実際に踊ってみて感覚的に理解することが、そういって意味において重要な要素となるのは言をまたないでしょう。そこに培われた民族の絆がひいては日本の中の偏見の壁をゆすぶるだけの内実をそなえたものとなるなら民族舞踊を学ぶじゅうぶな意義を見い出せるものと思う信じます。趣味程度に思う人も精通したいと思う人も皆で楽しく勉強しましょう。

- 一、クラス：Aクラス(小学生) Bクラス(中学生) Cクラス(熟練者) Dクラス(その他一般)
- 一、練習日：週2日
- 一、授業料：毎月3,000円(初月のみ入学金1,000円)
- 一、練習着：規定のチマ・チョゴリを着用すること。(急な舞台にそなえて共通の衣装が必要なので。)

一、連絡所：大阪市生野区大友町2丁目16-1
詳しくは06(728)0692
朴貞子迄